



# 한달뒤 지상 최고의 짜릿한 3일이 온다

■ 좌석안내



- R석** (메인그랜드 스탠드)=최고가 좌석. 머신들의 스타트와 피니시의 감동에 그리드걸, 피트스톱(머신 정비소) 등 다양한 볼거리를 지켜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 S석** (그랜드스탠드 A)=스타트 라인을 마주보는 첫번째 코너에 위치한 좌석으로, 추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다.
- A석** (그랜드스탠드 C-D)=영암 서킷에서 3번째로 긴 직선 구간(800m)을 거쳐 4~5~6번 코너로 이어지는 M자형 커브길을 통과하는 코너 탈출의 묘미를 맛볼 수 있다.
- B석** (그랜드 스탠드 B, E-a,b,c,F,G,H-a,b,L,M)=드라이버의 달력과 기술력에 따른 순위 싸움이 볼거리다. F1의 매력인 굉음을 가장 자극적으로 들을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다.
- C석** (그랜드 스탠드 I-a,b, J-a,b)=영암호를 배경으로 노을빛을 받으며 달리는 머신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구간이다. 비교적 저렴한(7만원대)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다.

■ 티켓 가격 (단위:원, 부가세 포함)

등급	좌석명	전일권 (10/14~16)	일요일 (10/16)	토요일 (10/15)
R	메인그랜드스탠드	890,000	720,000	460,000
S	그랜드스탠드 A	690,000	540,000	370,000
A	그랜드스탠드 C	510,000	410,000	260,000
	그랜드스탠드 D	510,000	410,000	260,000
B	그랜드스탠드 B/L	380,000	280,000	170,000
	그랜드스탠드 F/E-c	380,000	280,000	170,000
	그랜드스탠드 E-a/b	380,000	280,000	170,000
	그랜드스탠드 M	380,000	280,000	170,000
	그랜드스탠드 G/H	380,000	280,000	170,000
C	그랜드스탠드 I/J	180,000	145,000	87,000

\*그랜드스탠드 K, N은 사회 공헌 프로그램 등 프로모션을 위해 미판매  
\*조직위는 시기별로 다양한 할인율 적용

'스피드가 있다! 쾌감이 있다! 짜릿함이 있다!'

세계 최고의 스피드축제 F1(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가 불과 37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개최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전남도와 F1대회조직위원회는 9일 시작돼 14일까지 계속되는 추석 연휴 기간을 적극 활용키로 하고 수도권을 시작으로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전에 시동을 걸었다. 전국 공공기관 전광판(75개)과 민간 전광판(33개)에 지속적으로 F1 대회 개최 소식을 내보내는 한편, 서울 명동과 신촌, 종로, 강남역 등 인구 밀집지역에서 유명 연예인이 참여하는 '게릴라성' 홍보전을 펼쳐 개최열기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곳곳에 플래카드를 내걸고 고속도로 휴게소·톨게이트에서 F1 대회 및 가족과 둘러볼만한 남도 관광지를 소개하면서 '10월 가족 나들이'코스로 권유한다는 계획이다.

10월 14~16일 세계 24명 드라이버 스피드 대결

K팝 콘서트·공군 에어쇼·비보잉 등 볼거리 쏠쏠

◇대회는 10월 14일~16일까지, "꼭 오세요"=F1 코리아 그랑프리는 19개 나라를 돌며 치러지는 '2011 포뮬러원 월드 챔피언십'(Formula 1 World Champion ship) 시리즈 중 16번째로 치러진다. 14일은 연습 주행, 15일 예선, 16일 결승 레이싱이 펼쳐진다. 예선은 모두 3차례에 걸쳐 이뤄지며 결승 경기에서는 예선 성적을 기준으로 순서를 정해 출발한다.

첫번째 예선전에서는 12개팀 24명의 선수가 20분 동안 자유롭게 레이스를 펼치며, 기록은 전체 기록의 합산이 아닌 랩(경주장 한 바퀴) 최고 기록을 사용한다.

이 기록을 기준으로 하위 7명의 선수들을 제외하고 17명의 선수들이 15분 동안 두 번째 레이스를 펼쳐 다시 7명을 기록 순서로 탈락시킨다. 마지막 예선에서 남은 10명이 10분 동안 레이스를 펼쳐 결승 레이스 출발 순위 1~10위를 각각 차지하게 된다. 출발 순위 1위를 '폴포지션'을 확보했다고 말한다. 결선은 24명의 선수가 예선 성적에 따라 출발하며 정해진 거리를 가장 빨리 달린 선수가 우승을 차지한다. 한국 대회는 5.615km의 서킷을 55바퀴 돌아야 한다.

전체 그랑프리 참가 성적을 더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선수가 19개 대회가 끝난 뒤 드라이버 챔피언이 되며, 각 팀당 2명씩인 드라이버 점수 합계로 팀 챔피언이 결정된다

지난대회 기간 중 구설수에 올랐던 스탠드 설치 공사는 모두 마무리됐고 패독클럽에 새로 홍보관을 만드는 인테리어 공사와 일반인들을 위한 주차장 진입도로도 새로 포장 작업을 마쳤다.

◇24명의 드라이버 속도 경쟁, 누가 더 빠를까=F1 드라이버는 세계에 단 24명뿐이다. 한국 팀이나 선수가 없는 게 흠이라면 흠이지만 24명 중 한 명을 정해 응원하면 경기를 지켜보는 재미가 더해진다.

코리아 그랑프리의 경우 올 시즌 사실상 챔피언 자리를 예약한 제바스티앙 페텔(독일·레드불 레이싱)의 우승 여부, 2·3·4위인 마크 웨버(레드불 레이싱)·페르난도 알론소(스페인·페라리)·벤슨 버튼(영국·맥라렌)의 순위 싸움이 볼만하다. 여기에 미하엘 슈마허(독일·메르세데스 GP)의 선전 여부도 볼거리다. 이들이 모는 F1 머신의 색깔과 특징 등도 알아두면 흥미가 더해진다.

◇경기 못잡은 볼거리도 쏠쏠=흠미진진한 스피드 경쟁 못지않게 볼거리도 풍성하다. 예선이 열리는 15일에는 'K-POP 한류 콘서트'가 열려 소녀시대와 슈퍼주니어 등이 출연해 개최 열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결승이 치러지는 16일에는 공군의 블랙이글 에어쇼와 군악대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대회 기간 중 록페스티벌, 비보잉, 전시체험 등도 계획을 세워놓았다. 하루 코스로 꼭 둘러볼만한 관광지도 적지 않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경주장 주변 주요 관광지

경주장과 연결되는 국도 2호선이나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에 위치해 있는 관광지가 많다. 특히 전남도는 10월을 'F1과 함께하는 남도 방문의 달'로 정해 F1 티켓만 있으면 공짜로 둘러볼 수 있다.



◇월출산, 구림 마을 =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영암 월출산과 2200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구림(鳩林)마을은 가을 정취를 느끼면서 호젓한 사색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다. 월출산의 기암괴석과 인근의 왕인 박사 유적지를 둘러본 뒤 왕인학당 뒷편 망월정을 거쳐 문산재까지 이

여진 산책로를 걸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강진 영랑생가, 청자박물관=강진을 남성리에 위치한 영랑생가는 대표적 서정시인이자 민족운동가인 김영랑(1903~1950)시인의 창작 산실로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252호로 지정돼 있다. 또 고려시대 유일의 왕실 관요(官窯= 관아에서 운영하던 가마)가 있었던 지역인 만곡강진청자박물관도 꼭 한 번 둘러볼만한 여행지다. 영랑생가, 청자박물관, 마량항 등 문화유적지가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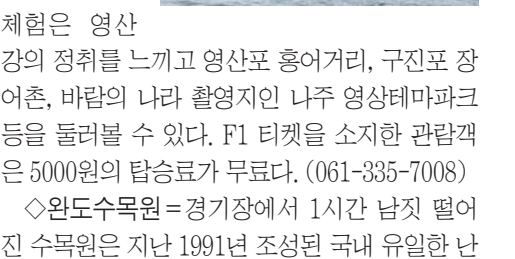
맞는 곳마다 즐비한 남도답사 1번지라는 명성에 걸맞게 관광객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청자박물관 061-430-3718)

◇장흥 우드랜드, 한우 토요일시장='우드랜드'는 억불산 자락에 100ha의 편백숲에 연간 25만명 이상이 찾아오는 산림교육·휴양·체험공간의 명소다. 하루 숙박이라도 하려면 3개월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체험·휴양·관광단지인 '비비(vivi) 에코토피아'와 목공예품을 직접



만들어 전시·관매하는 '전남도 목공예센터'를 둘러보는 것 만으로도 3시간은 훌쩍 간다. (061- 864-0063). ◇영산강 향포돛배=영암 서킷과 인접, 관람객들이 꼭 한 번 타볼만한 관광상품이다. 향포돛배는 고려시대부터 1970년대까지 해상교역의 중

심지었던 영산강에서 쌀과 소금, 젓갈 등의 해상운송 수단역할을 했다. 돛배 체험은 영산강의 정취를 느끼고 영산포 흥겨운 놀이, 구진포 장어촌, 바람의 나라 활영지인 나주 영산테마파크 등을 둘러볼 수 있다. F1 티켓을 소지한 관람객은 5000원의 탑승료가 무료다. (061-335-7008)



◇완도수목원=경기장에서 1시간 남짓 떨어진 수목원은 지난 1991년 조성된 국내 유일의 난대 수목원, 난대성 희귀식물인 황칠나무, 완도호랑가시나무 등 700여 종이 자생하고 있어 아이를 둔 가족 나들이 장소로 적합하다. 인근에 드라마 해신 세트장과 장도 청해진 유적지 등 볼거리도 많다.(061-552-1544) /김지을기자 dok2000@

# 즐겁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

그동안 베풀어 주신 관심과 성원에 마음깊이 감사드리며

온 가족과 함께하는 즐겁고 뜻깊은 추석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즐거운 명절, 행복한 추석되세요. 감사합니다.

에드랑 직원 일동

종합광고대행사 **adRang** (주)에드랑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314-7 청호B/D2F T.062-385-1222 F.062-385-1331